

## 참고 7.

### 코로나19 관련 정책대응이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효과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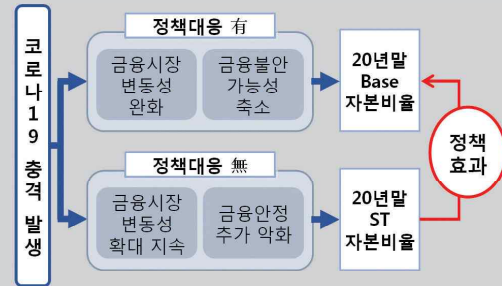
한국은행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<sup>1)</sup>들은 투자 심리 개선,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. 그러나 가계·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과정에서 신용공급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 자본여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.

이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해 보았다.

#### 점검 방법

정책효과는 현재의 금융안정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2020년말 금융기관 자본비율(baseline)에서 정책대응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(counterfactual)를 차감하여 산출하였다.

#### 코로나19 정책효과 점검 구조



정책효과 점검을 위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. Baseline 시나리오는 경제활동<sup>2)</sup>이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정책대응 이후의 금융시장 안정세가 유지되고 안정적인 신용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. Counterfactual 시나리오<sup>3)</sup>는 적절한 정책대응 부재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가격변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신용공급이 경기순응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.

#### 점검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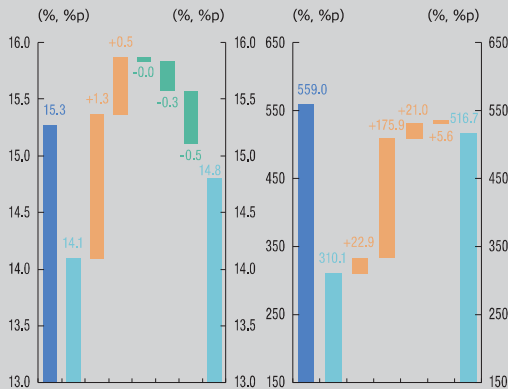
금년중 금융기관의 자본여력은 정책대응이 없었던 경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정책효과가 반영(baseline)된 은행의 2020년말 예상 BIS총자본비율은 14.8%로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(counterfactual, 14.1%)에 비해 0.7%포인트 높은 수준이다. 이는 은행의 적극적인 신용공급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부도 및 연체가 줄

1)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(3월 16일 -0.50%포인트, 5월 28일 -0.25%포인트), 한·미 통화스왑 체결(3월 19일, 600억달러), 채권·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, 회사채 발행 지원, 소상공인·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이 있다.  
2) 국내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(20년 5월)을 반영하여 2020년 상반기중 -0.5%로 낮아졌다가 하반기중 0.1%로 높아지면서 2020년 연중으로는 -0.2%를 기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.  
3) Counterfactual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 baseline 시나리오(-0.2%)와 동일한 가운데 KOSPI는 518 포인트 낮고 신용스프레드(국고채 3년물 대비 회사채(AA-) 3년물 금리 스프레드)는 244bp 높은 상황(20년 하반기 평균 기준)을 가정하였다. 아울러 2020년 하반기 신용 증가율(전년동기대비)이 -4.4%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.

어 들면서 신용손실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. 이에 따른 자본비율 상승효과는 1.3%포인트 수준이다. 다만 대출 확대 등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는 점은 자본비율을 다소 낮추는(-0.5%포인트) 요인으로 작용한다. 증권회사의 2020년말 예상 순자본비율(NCR)은 516.7%(baseline)로 정책 부재 시(counterfactual, 310.1%)에 비해 206.6%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시장손실 감소, 주식 거래량 증가<sup>4)</sup>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.

#### 은행 BIS총자본비율<sup>1)</sup>



주: 1) X축의 계열 이름은 왼쪽부터 2019년말, counterfactual, 신용손실, 시장손익, 고유손익, 전염손실, RWA변동, baseline

2) X축의 계열 이름은 왼쪽부터 2019년말, counterfactual, 신용손실, 시장손익, 고유손익, 전염손실, baselin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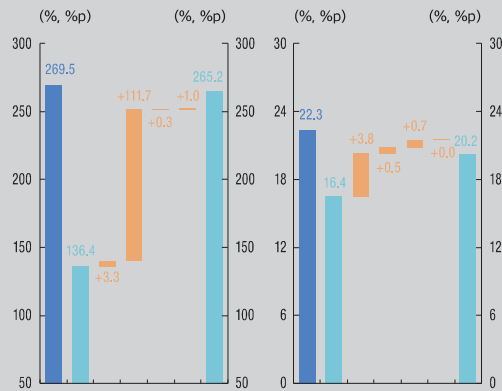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(RBC비율, baseline, 265.2%)은 정책대응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으로 보유 유가증권 관련 시장손실이 감소하면서 정책이 없을 경우(counterfactual, 136.4%)에 비해 128.8%포인트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. 한편 카드사의 경우, 정책대응이 조정자기자본비율에 미치

는 효과는 3.8%포인트(counterfactual 16.4% → baseline 20.2%)에 이른다. 여기에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공급에 따른 차주 부도위험 저하,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. 또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도 원리금 상환 유예, 만기연장 조치 등으로 차주의 부실위험이 억제되면서 긍정적인 정책효과<sup>5)</sup>가 나타났다.

#### 보험회사 RBC비율<sup>1)</sup>

#### 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<sup>1)</sup>



주: 1) X축의 계열 이름은 왼쪽부터 2019년말, counterfactual, 신용손실, 시장손익, 고유손익, 전염손실, baseline

자료: 한국은행

## 평가

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들은 금융기관의 자본여력 유지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.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효과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일시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며, 그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 공급된 신용의 상당 부분이 부실화되면서 금융기관 복원력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4) 주가 변동 등에 힘입어 일평균 KOSPI 거래량이 2019년 4.7억주에서 2020년 3월 이후 7.0억주 이상(3월 7.8억주 → 4월 10.5억주 → 5월 8.5억주)으로 증가하였다.

5)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의 자본비율에 대한 정책효과는 각각 0.5%포인트(counterfactual 14.2% → baseline 14.7%) 및 0.2%포인트(counterfactual 7.7% → baseline 7.9%)로 추정된다.